

唐代 접경공간으로 邊州의  
시대적 변동양상 연구\*  
- 당-토번 간 邊州공간의 대외확장과  
대내축소를 중심으로 -

이준복\*\*

목차

- I. 머리말
- II. 토번의 성장과 변주공간의 기본골격 형성
- III. 안사의 난 이전 변경공간에서의 충돌과 맹약
- IV. 맺음말: 안사의 난 이후 唐 변주공간의 변화 추이

I. 머리말

당대는 중국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주변국가와의 인적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방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하여 당제국과 주변 국가를 구분 짓는 접경공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대 접경공간으로서의 邊州는 당 건립 초기 이민족을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羈縻州와 다르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조교수

내지의 正州들과도 구분된다. 이 접경공간은 長城(隋 장성)·關塞·軍·守捉·鎮·空閑地·烽燧·木柵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군사적 공간인 동시에 일반 백성들의 일상사가 펼쳐지는 생활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당제국은 중국에 이주한 이민족을 주로 변주지역에 안치시켜 한족과의 잡거를 허용하였고, 그들의 정체성(古俗)을 허용해 줌에 따라, 이들 접경지역은 다양한 종족이 잡거하고, 한족의 농경과 비한족의 유목 혹은 임업이 결합된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혼재했다. 한편, 이들 접경공간은 근대이후 주권과 영토국가와 같이 국경과 국경선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당제국과 주변 국가 간 힘의 균형에 따라, 그 공간과 경계선은 가변적이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지닌 당대 접경 가운데, 본 논문에서 변주의 변동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대 전시기를 돌아볼 때, 변주의 시간적 변동성이 변경 모든 지역에서 뚜렷하게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당제국 초기 당의 대외적 확장은 전방위적으로 시도되긴 하였지만 북방 지역과 청장고원 지역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기미주 설치를 통한 간접통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제2돌궐제국(682~745) 건립이후 당제국의 북쪽 동서에 위치한 변주들은 오르도스(河套) 황하 북안 물줄기와隋 장성(혹은 桑乾河 물줄기) 주변에 대부분 분포되었고<sup>1)</sup>, 동돌궐 제국 멸망 후 새롭게 등장한 회흘 제국(742~840) 역시 돌궐의 강역을 그대로 계승하여 당-회흘 간 변경지역의 변동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 전시기에 걸쳐, 당의 변경과 직간접적으로 마주하면서, 쌍방 간 힘의 균형에 따라 강역이 대외확대와 대내축소를 거듭한 것은 토번제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당대의 접경공간의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변동성이 뚜렷한 당-토번 간 변주공간만을 한정지어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다루려 하는 당대 ‘변주’ 용어의 공간상 범주를

1) 이춘복, 「唐代 접경공간으로 三受降城」, 『역사문화연구』 제71집, 2019.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접경공간으로 ‘변주’라는 역사용어<sup>2)</sup>는 당대 사료에서 ‘邊州’ 혹은 ‘緣邊諸州’ 등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변주”란 기본적으로 당제국의 행정력과 군사력이 실제로 미치는 ‘正州’에 속하지만, 정주 가운데 변경에 접한 변방지역에 위치한 복수의 州에 국한해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이고, ‘연변변주’란 변경지대에 마치 띠를 두르듯이 이어지는 복수의 州들만을 특칭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변주와 구분하기 위해, 변주 안쪽에 위치한 복수의 정주를 ‘내지 정주’로 부르기로 하겠다. 변주를 내지 정주와 구분하는 서술은 『唐律疏議』와 『唐會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737년에 개수된 『唐律疏議』의 관련 조항에 ‘변방 요지의 관리(邊要之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靈州, 勝州 등 59개 주가 邊州이다’라고 정주 가운데 변주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sup>3)</sup> 주지하다시피, 변주는 ‘내지 정주’와 동일하게 당의 戶籍제도와 병역제도에 편제되어 직접적인 관리 대상인 지역으로, 공물과 부세 및 호구 등 당조의 통치대상이 아닌 기미주와는 다르다. 또한, 기미주를 간접 관할하는 당의 관청은 모두가 변주에 설치되었는데, 기미주는 변주 도독이나 변주 도호부의 관할 대상일 뿐, 그 반대는 기미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 것으로 불가역적이다.<sup>4)</sup> 한편, 『당육전』에서는 변주에 거주하는 ‘재직 관리가 이유 없이 도망할 경우’, 내지 정주에 거주하는 관리 보다 중죄로 처벌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변주와 내지 正州를 구별하고 있다.<sup>5)</sup> 이는

2) 『唐六典』·『通典』·『新唐書』·『舊唐書』·『唐會要』·『冊府元龜』·『全唐文』은 물론이고, 백거이, 육지, 두보 등 唐代 개인 시집과 문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역사용어이다.

3) 長孫無忌 등 撰, 『唐律疏議』(이하 『唐律疏議』), 中華書局, 1983, 537쪽.

4) 歐陽修, 『新唐書』卷43下(이하 『新唐書』), 中華書局, 1975, 1119쪽. 변주는 기본적으로 정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접 관할하는 기미주와 다르다. 기미주의 우두머리 장관은 당 황제가 그들의 통치할 강역(봉토)을 인정해주고 작위를 제수하며, 그 장관은 세습된다. 변주는 내지 정주와 같이 당황제가 직접 파견하고, 세습이 불가하다. 鄧仕海, 『唐代西南邊政與邊吏研究』, 雲南大學(박사학위), 2017, 96쪽 참조.

5) 『唐律疏議』, 186쪽.

『당회요』 ‘諸侯入朝’ 항목에서도 확인된다.<sup>6)</sup> 변주에 재직하는 도독과 자사의 朝集 의무를 내지 정주의 도독과 자사 보다 완화해서 적용시킨다는 730년 당 현종의 칙서형태의 행정명령으로, 변주와 내지 정주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당회요』와 『당율소의』에서의 변주관련 서술, 특히 변주의 수치와 배열방식이 부정확하여<sup>7)</sup>, 본 논문에서는 738년 출간된 『당육전』의 변주 관련 서술을 차용하려 한다.

『당육전』에서는 당제국의 동북쪽 변주에서 출발해서 서북쪽 변주에 이르기까지, 다시 서북쪽 변주에서 서남 변주에 이르게 순차적으로 배열한 것은 물론, 당대 군사단위인 道에 따라 변주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당육전』 변주관련 조항에 의하면, 50개 州를 당시 변주로 꼽고 있다.<sup>8)</sup> 이들 가운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당 - 토번 간 변경과 관련되어 있는

- 
- 6) 王溥, 『唐會要』卷24(諸侯入朝), 商務印書館, 1936, 460쪽. 개원 18년(730) 칙령에서 아래 59개 州를 변주로 특정하고 있다. “靈州, 勝州, 涼州, 相州, 代州, 黔州, 葛州, 豐州, 洮州, 朔州, 蔚州, 嬌州, 檀, 安東州, 疊州, 廓州, 蘭州, 鄯州, 甘州, 肅州, 瓜州, 沙州, 嵐州, 鹽州, 翼州, 戎州, 慎州, 威州, 西州, 牢州, 當州, 郎州, 茂州, 歡州, 安北州, 庭州, 單于州, 會州, 河州, 岷州, 扶州, 拓州, 安西, 靜州, 悉州, 姚州, 雅州, 播州, 容州, 燕州, 順州, 忻州, 平州, 靈州, 臨州, 薊州等五十九州, 爲邊州.”
  - 7) 『당회요』에 등장하는 칙문에서는 737년 발간된 『당률소의』에서 변주로 지목한 靈州, 勝州를 필두로 하고 있고, 그 변주의 총수도 59개로 일치한 것을 보면, 『당률소의』를 편찬한 이입보 등이 위 칙서를 참조하여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위 칙문에 나열한 변주는 실제로 55개 州로, 3개주는 누락되었고, 靈州는 중복 출현하며, 柘州를 拓州로 잘못 기술한 誤字도 보이는 등의 문제점 외에도,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가령, 영주와 승주는 당시 河西道 산하 邊州인데, 같은 道에 속해 있는 蘭州·甘州·肅州·瓜州·沙州와 함께 나란히 나열하고 있지 않아 그 원칙이 무엇인지 모호한 점, 洮州와 臨州를 동시에 변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신·구당서』의 관련기록과 차이가 있는 점, 칙문에 나열된 변주 가운데 慎州, 威州, 燕州, 順州 등은 당시 羈縻州에 속한 것으로 변주와 기미주에 대한 인식상의 혼란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59개 변주를 당 현종시기 변주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8) 李林甫, 『唐六典』卷3(尙書戶部), 中華書局, 1992, 73쪽. 安東(도호부), 平州, 營州, 檀州, 嬌州(이상 5개 변주는 河北道 관할), 蔚州, 朔州, 忻州, 安北(도호부), 單于(도호부), 代州, 嵐州, 雲州(이상 8개 변주는 河東道 관할), 勝, 豐, 鹽, 靈, 會(이상 5개 변주는 關內道 관할), 涼, 肅, 甘, 瓜, 沙, 伊, 西, , 河, 蘭, 鄯, 廓, 疊, 洮, 岷(이상 14개 변주는 隴右道 관할), 扶(1개 변주는 山南西道 관할), 柘, 維, 靜, 悉, 翼, 松, 當,

변주만을 서북쪽에서 서남쪽에 이르도록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安西都護府 · 北庭都護府; ② 西州 · 伊州 · 沙州 · 瓜州 · 甘州 · 肅州 · 涼州 · 蘭州; ③ 鄯州 · 廓州 · 河州 · 疊州 · 洮州 · 岷州 (西州이하 ②③의 14개 변주는 隴右道 관할); ④ 扶州(1개 변주는 山南西道 관할); ④ 松州 · 翼州 · 茂州 · 維州 · 檣州; ⑤ 當州 · 柘州 · 靜州 · 悉州 (이상 송주 이하 ④⑤의 9개 변주는 劍南道 관할) 등이 그에 해당한다. 730년대 당제국의 강역확장이 최고조에 달한 최전성시기에 변주로 지정된 50% 이상이 토번제국의 변경과 마주하거나 대치하고 있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당과 주변 국가의 길항관계에 따라 이들 변주들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확장되고 대내적으로 축소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당-토번 간 접경공간의 시대적 변동양상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당대 변주에 대한 기존연구가 없지는 않지만<sup>9)</sup>, 접경공간으로 변주 연구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아직은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 생소한 영역이다. 다만, 장성을 경계선으로 유목경제와 농경경제 사이의 변경을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본 연구와 인식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연구성과가 있어 주목된다. 내륙아시아(Inner Asia) 변경(Frontiers)연구의 선구자인 라티모어(Lattimore, Owen)와 유목민족 침략-약탈론을 주장한 바필드(Thomas J. Barfield)의 연구가 그 대표적이다. 라티모어는 당대의 변경연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생태학적 환경요인에 주목하여, 중국의 만리장성과 칭장고원의 험준한 고령을 경계선으로 변경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sup>10)</sup>

戎, 茂, 檣, 姚(이상 11개 변주는 劍南道 관할), 播, 黔(이상 2개 변주는 黔中道 관할), 驪州, 容州(이상 2개 변주는 嶺南道 관할).

9) 당대 邊州를 주목한 기존연구로, 王丹, 「唐代邊州研究重要性論析」, 『新西部』第9期, 2016, 79-80쪽; 許偉偉, 「唐代前期邊州若干問題初探」, 武漢大學(碩士學位), 2006, 1-46쪽 등 꼽을 수 있다.

10) Owen Lattimor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Boston: Beacon Press, 1962, pp. 16-17, 247

특히, 당대 돌궐과 회흘 등 북방 유목제국이 장성을 기준으로 유목국가와 농경국가의 접경공간으로 당의 변주를 적용하는 데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이론은 변경이 설치된 장성이 생태학적 환경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되는 지역일 경우 설득력을 지닐 수 있지만, 국제정세에 변화에 따라 접경공간이 농경지역이든 유목지역으로 이동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가령, 라티모어가 토번- 당 간 변경지역과 관련된 서장지역의 험준한 고령들이 북방의 장성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하였지만<sup>11)</sup>, 안사의 난 이후 당대 토번이 청장고원에서 활동범위를 농경지역인 관중일대로 확장한 결과 새롭게 재편된 변주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바필드의 연구는 유목제국이 농경국가에 대한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을 통해 경제적인 결핍을 해소한다는 주장이다.<sup>12)</sup> 이 주장은 초원제국이 정주국가에 비해 침략과 약탈에 의존한다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면 유의미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따르면 당제국 초기 초원제국인 동돌궐은 자연재앙으로 극한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더 강력한 침략과 약탈을 행해야 했지만, 오히려 당에 투항을 선택하여 생존을 모색한 역사적 사실(630년~680년)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당-토번 관계에서 침략과 약탈은 어느 일방의 전유물로 볼 수 없고, 당제국 역시 토번에 침략과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필드의 이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바필드는 유목제국이 초원에 머무르면서 농경국가를 수시로 약탈하는 상황을 정형화시켜 설명하고 있지만, 안사의 난 이후 토번제국이 그 세력을 농경지역인 관중일대로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점령한 것과 같이, 토번세력이 정주지역인 새로운 변경시대에서 정주화한 과정을 해석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11) Owen Lattimor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p. 247.

12) Thomas J.Barfield,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Wiley-Blackwell, 1992. 한국어 번역본으로, 윤영인 번역,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조.

본고에서는 이런 성과를 기초로, 접경공간을 고정불변의 활동범위로 단정하지 않고, 역사적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한 공간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당-토번 간 변경의 변동성이 뚜렷한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어, 변주공간이 대외확장과 대내축소 되는 변화양상과 그 대략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토번제국의 성장과 변주공간의 기본골격 형성

당제국 건립 초기부터 당 - 토번 간 직접 대면하는 변경공간이 구획된 것은 아니다. 680년 이전 당 - 토번 간의 조우는 양 제국사이에 위치한 완충지대인 土谷渾·羌族·白蘭族 등 이민족 거주지역과 당제국 강역 밖에 위치한 羈糜州를 쟁탈하여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간접충돌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680년 이후, 청해지역에서 토번제국의 잇따른 승리로 완충지대 역할을 한 羈糜州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토번이 변경을 직접 마주하는 변경공간의 기본골격이 형성된다.

당대 전기 당제국과 토번제국은 강역을 대외로 확장하는 확장주의를 표방한다. 당제국의 확장이 서쪽 河西회랑을 넘어 서역 안서4진과 동쪽 고구려·백제 등으로 북동 동진과 북서 서진을 병행하면서 동서 양면으로 확장했다면, 토번제국은 청장고원 동쪽으로 확장하는 동진정책을 실행하게 된다. 670년 당 - 토번 간 대규모 직접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 양 제국은 서로의 팽창주의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듯하다.<sup>13)</sup> 토번의 거듭되는 혼인 요청을 당제국이 거절한 것은 당에게 토번은 청장고원 동쪽 토욕혼이나 오로도스 황하 북쪽의 돌궐, 요동의 고구려 등에 비해 주변 오랑캐로서 그다지 중요한 존재, 혹은 정복대상이 아니었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이러한

13) Denis Twitchett,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Sui-and-Tang-China-589-906-AD-Part-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285.

상황에서 토번의 동진정책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선 청장고원 동북쪽 松波國과 사천성 서남부의 多彌<sup>14)</sup>·附國 등 羌族 거주 지역을 차례로 정복한다. 635년에는 청해일대를 차지하면서 당의 영향력 하에 있던 土谷渾은 물론이고, 황하 상류와 岷山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黨項족 부락과 白蘭族 부락 등을 공격하여 장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토번은 당 공주와의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 토욕혼의 이간질 때문이라며, 청해의 동북부지역으로 달아난 토욕혼을 공격하고, “만약 大國(당제국)이 공주를 나에게 시집보내지 않으면, 당장 침략할 것이다”라고 공언한다.<sup>15)</sup> 638년 당이 또다시 혼인 요청을 거절하자, 토번은 사천 서북부에 위치한 군사 요충지인 松州를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공격한다.<sup>16)</sup> 이 송주 전쟁은 토욕혼이나 당항족·백란족과 같은 토번 - 당 간의 완충지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당이 직접 관할하는 변주를 공격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송주 전쟁은 토번군 1천여 명의 희생과 패배로 끝났지만, 토번이 얻은 성과는 적지 않았다. 우선 기존 당 영향력 하에 있던 토욕혼을 청해로부터 몰아냈고, 여러 羌族과 氐族들을 복속시켰다. 또한, 토번이 원하던 당의 문성공주와 혼사가 성사된 점, 당제국으로부터 당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국가로 인정을 받게 된 점, 그 후 20여 년 간 양 제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평화가 지속된 점, 새롭게 장악한 청해지역을 포함한 청장고원 동부지역을 확보한 점을 감안한다면 토번제국으로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은 송주에서 토번군을 막아냈지만, 그로 인해 얻은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송주전쟁은 그 후 당과 토번의 2백년 간 충돌과 갈등의 서막이라 할 수 있고, 이 전쟁 이후 토번제국에 유리한 형세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 周偉洲, 「多彌史鉤沉」, 『民族研究』 제5기, 2002, 62-69쪽.

15) 劉昫, 『舊唐書』卷196上(吐蕃上), 中華書局(이하 『舊唐書』), 中華書局, 1975, 5221쪽.

16) 『舊唐書』, 5221쪽; 歐陽修, 『新唐書』卷216上(吐蕃上), 中華書局(이하 『新唐書』), 1975, 6073쪽; 司馬光, 『資治通鑑』卷175(이하 『資治通鑑』), 中華書局, 1992, 6139-6140쪽.

문성공주의 혼사 성립으로 인한 당-토번 간 직접적 갈등과 충돌은 수그러들었지만 당의 간접 관할 지역인 기미주와 당-토번 완충지대에 거주한 주변종족에 대한 영향력은 토번제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특히, 당제국이 660년에서 668년 사이 백제와 고구려 정벌 등 동부전선에 몰두할 무렵, 토번제국은 청장고원에서 동진을 시도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다.<sup>17)</sup> 663년 토번은 우선 토욕혼을 완전히 멸망시키고<sup>18)</sup>, 청해 초원의 목장을 토번세력의 정착지이자 청해-관중으로 이어지는 동진 전진 기지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토번제국은 청해의 후방인 황하 상류에 위치한 ‘河曲 16개 기미주’<sup>19)</sup>와 청장고원 남동쪽의 ‘弱水-西山 간 68개 기미부주’<sup>20)</sup> 및 岷江-西山 간 9개 기미주<sup>21)</sup> 등 黨項·白蘭·春桑·白狗 등 羌族들이 거주하는 당제국의 기미주 대부분을 잠식하게 된다.<sup>22)</sup> 670년 4월에는 토번군이 서역을 공격하여, 안서4진을 장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sup>23)</sup>

이러한 토번의 동진과 기미주 잠식에 대해, 당제국은 강은 양면정책으로 대응한다. 강경책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과 같은 공격적 군사행동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주역인 맹장 薛仁貴에게 邏娑道行軍大總管의 관직을 수여하고 군사 40만(혹은 10여만) 대군을 이끌고 토번제국 원정에 나서는 것이었다.<sup>24)</sup> 관직명이 ‘邏娑道’인 것을 보면 당 원정군의 최종 목적지는 토번의 수도 라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설인귀가 이끄

17) 陳寅恪, 『唐代政治史論考』, 『陳寅恪集』, 三聯書店, 2001, 345-346쪽 수록.

18) 토번제국이 토욕혼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당제국은 양국의 군사요청 모두 허락하지 않는 중립정책을 실시한다. 『舊唐書』卷198(土谷渾傳), 5300쪽.

19) 郭聲波, 「河曲十六州交通与地望考」, 『中國歷史地理論叢』第2輯, 1994, 167-182쪽.

20) 郭聲波, 「唐弱水西山羈縻州及保寧都護府考」, 『中國史研究』, 1999, 82-93쪽.

21) 郭聲波, 「岷江西山九州考」, 『中國歷史地理論叢』第2輯, 1998, 41-59쪽.

22) 『舊唐書』卷198(黨項羌傳), 5292쪽.

23) 『資治通鑑』卷201. 6363쪽.

24) 『資治通鑑』에는 40만 대군으로 기술하고 있음. 『資治通鑑』卷201. 6364쪽. 『舊唐書』에서는 10여만으로 기술하고 있음. 『舊唐書』卷196(吐蕃上), 5222쪽.

는 당의 원정군은 청해의 후방에 위치한 大非川에서 토번군에 궤멸되다시피 대패하게 되었고, 출전했던 명장들이 사로잡혀 훈계를 받는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비천 전투는 단순히 패배와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대비천 전투로 토욕혼·羌族·白蘭族 등 이민족 거주지역과 당제국 변주 밖에 위치한 羈糜州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것이다. 말하자면, 완충지대로서 羈糜州가 사라졌기 때문에, 변경을 마주하고 토번제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sup>25)</sup>

대비천 전투 이후, 토번제국은 청장고원에 잔존한 기미주를 점차 점령하고, 나아가 疊州·芳州·扶州 등 민산 북쪽 白龍江 물줄기를 따라 설치된 변주들에게 공격을 가했다. 이로써 민산 남쪽 當州·悉州 등 당의 변주에 거주하는 강족들이 대부분 토번에 투항한다. 그 여세를 몰아 673년 토번제국이 안서 4진 가운데 하나인 쿠차마저 공격하여 당제국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676년 토번군은 황하상류에서 관중평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鄯州·廓州·河州·芳州 등 변주지역을 침범하여 백성과 관리를 죽이고 약탈을 자행하는 한편, 사천 서북부에 위치한 疊州·扶州 등 변주를 공략하게 되었고, 이들 변주와 인접한 芳州를 점령한다.<sup>26)</sup> 방주는 당의 기미주가 아닌 변주 가운데 첫 번째로 토번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은 방주를 포함한 청해-관중 루트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신라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철군을 감행해야 했고<sup>27)</sup>,

25) 670년 서쪽 토번제국과 당제국 사이의 기미주가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682년 제2 돌궐 제국이 건립되면서, 북방 변경 밖 기미주도 소멸되었고, 고구려 수도 평양에 설치한 안동도호부를 遼東古城(676)과 新城(677)으로 이동하였으며, 웅진도독부를 建安古城에 이동함으로써 당제국의 북동쪽 기미주 역시 살아졌다. 『資治通鑑』卷202, 6378-6379쪽; 王欽若, 『冊府元龜』券991(外臣部·備禦一), 鳳凰出版社, 2006, 11479쪽.

26) 『元和郡縣志』에 의하면, 芳州가 토번에 점령된 시기가 上元二年(675)으로 되어 있지만, 『資治通鑑』에서는 676년 토번이 방주를 공격했다는 기사로 보아, 방주가 함락된 것은 676년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李吉甫, 『元和郡縣圖志』卷39(이하 『元和郡縣圖志』), 中華書局, 1983, 1000쪽; 『資治通鑑』卷202, 6369쪽.

27) 『資治通鑑』卷202, 6385쪽.

당 고종이 嵩山에서의 봉선의례를 취소할 정도로 당의 변방에 대한 위기의식은 고도되게 된다.<sup>28)</sup> 토변에 맞서기 위한 당제국의 군사상 조치는 677년 토변의 세 방향 침략루트를 저지하기 위한 맞춤형 최전방 상비군의 설치였다. 청해→선주→하주(관중방향)로 이어지는 청해-관중루트의 입구인 선주에 河源軍(관병 1만5천명)을<sup>29)</sup>, 황하 상류→곽주→하주로 이어지는 황하 유역 동쪽 첫 번째 변주인 廓州에 積石軍(관병 7천명), 황하 상류 남안→洮河물줄기→민주루트의 입구인 洮州에 莫門軍(관병 5천5백명)을 설치했다. 그러나 상비군을 설치하긴 했어도 당제국의 주요전략, 특히 공세시의 전략은 여전히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하는 행군체제였다. 678년 당제국은 군사 18만의 원정군을 동원하여 토변정벌에 투입한다. 그러나, 백제유민 黑齒常之가 이끄는 결사대(敢死隊)가 토변 포위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한 것을 제외하고, 승풍령 전투에서 전멸에 가까운 대패를 당하게 된다. 승풍령 대첩의 승세를 타고, 680년 토변은 승풍령 인근에 있는 河源軍을 다시 공격하였다. 당은 백제 유민 출신의 黑齒常之를 통해 이를 물리친 후 장기적 방어태세를 갖추게 된다.<sup>30)</sup> 한편, 토변은 공격의 칼날을 사천 서북쪽 산악지대로 돌려, 당이 토변의 민강→성도지역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茂州의 남서쪽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인 안용성(安戎城)을 공격하여 점령한다.<sup>31)</sup> 이로써 무주 이남으로부터 大渡河에 남단에 이르는 여러 이민족(西洱諸蠻)들이 토변에 투항한다. 670년대 대비천·승풍령 등 크고 작은 전투에서의 토변군이 거듭된 승리로, 680년에는 청장고원 동쪽으로 향한 토변의 동진전략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고, 이를 통해 당- 토변 간 변경공간의 기본골격이 완성되었다 할 수 있다.

680년경 토변제국은 한족 사가들조차 인정한 바와 같이, 동쪽으로 당제

28) 『資治通鑑』卷202. 6379쪽.

29) 『元和郡縣圖志』卷39, 991쪽;杜佑, 『通典』卷172(州郡2)(이하 『通典』), 中華書局, 1988, 4482쪽

30) 『資治通鑑』卷202. 6395쪽.

31) 『資治通鑑』卷202. 6396쪽.

국의 양주, 송주, 무주, 靑州 등 변주와 대치하였고, 서북쪽으로 쿠차, 소록 등 안서 4진을 점령하였으며, 북쪽으로 돌궐 변방에 마주하여, 강역이 사방 1만 여리로 확장된 대제국을 형성, 당제국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강성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sup>32)</sup>

한편, 앞의 서문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737년 발간된 『당육전』 변주관련 조항에 의하면, 당시 총 50개 변주를 가운데 당-토번과 접경과 관련되어 있는 변주는 26개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당-토번 간 변주의 기본골격이 680년경에 완성되었지만, 737년의 변주의 분포와 일치한 것은 아니다. 26개의 변주 가운데 당제국 초기 설치한 伊州(630)·沙州(619)·瓜州(622)·甘州(619)·肅州(619)·涼州(619)·蘭州(619)·鄯州(619)·廓州(619)·河州(619)·疊州(619년 설치, 622년 토욕혼에 함락, 624년 재설치)·洮州(619)·岷州(618) (西州이하隴右道 관할; 扶州(설치년도 미상, 1개 변주는 山南西道 관할: 구체구); 松州(618)·茂州(618)·隴州(618) 등 15개 변주는 당과 토번의 교류가 시작되는 634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토번의 길항관계와 관계없이 737년 이전까지 변주의 지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나머지 10개의 변주는 기미주로 강등되기도 하고, 기미주에서 변주로 승격되기도 한다. 이들 변주의 공간과 경계선이 고정 불변하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데에는, 당제국과 토번제국의 형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650년 전후로 변주로 설치된 當州(647년: 송주 통궤현을 분할하여 當州로 분리 됨)·柘州(650년 설치)·靜州(650년 당주의 悉唐縣을 분할, 677년 강족이 반란으로 교치 임시관청)·悉州(656년 冀州之左封縣을 분할하여 변주로 설치) 등은 토번제국의 흑수-성도 침략 루트를 막기 위해 청장고원 남동쪽 岷江의 지류인 黑水 유역에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기존의 변주를 분할하기도 하고(當州, 靜州, 悉州 등), 기존의 변주 부근에 새롭게 설치하기도 한다.<sup>33)</sup>

32) 『資治通鑑』卷202. 6396쪽; 『新唐書』卷216上(吐蕃上), 6077-6078쪽; 『舊唐書』卷196(吐蕃上), 5524쪽.

이밖에 維州와 翼州처럼 기미주와 변주의 분류가 복수로 번복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유주는 당 초기(628)에 변주인 茂州 관할의 기미주로 분류되었다가, 665년 기미주에서 변주(正州 가운데 변방지역의 주)로 승격하였고, 677년에는 변주에서 기미주로 강등하였다가, 687년에는 기미주에서 정주로 다시 승격하여 변주의 치폐를 반복한다.<sup>34)</sup> 岷江 상류 물줄기에 위치한 변주인 송주와 무주 중간 지역에 위치한 翼州 역시 유주와 유사한 궤적을 남긴다. 익주 역시 당 초기(624) 茂州의 기미주로 분류되었다가, 670년에는 기미주에서 내지의 익주도독부를 승격되었고, 677년에는 다시 폐지되었다가 후에 당의 변주로 승격된다.<sup>35)</sup> 이 두 개의 변주는 737년 『당육전』에 모두 당의 변주로 유지되고 있고, 그 후 안사의 난 이전까지도 변주로 남아 있었던 것은 토번제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당 현종 시기 이 두 지역에 성곽과 수축성 및 진병 등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겠다. 가령 759년 토번에 의해서 점령되기 이전 유주에는 2142 戶에 3198명이 등록되어 있고, 15개의 守捉군성과 2개의 鎮兵이 배치되어 있었다. 익주의 경우는 711호에 3618명의 인구가 보고되고, 4개의 軍城과 3개의 수축성 및 5개의 진병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두 개의 변주가 기미주와 변주를 오가면서 최종 당의 변주의 지위를 남았다는 것은 변경을 군사적으로 튼튼히 하여, 토번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36)</sup> 한편, 640년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안서도호부를 설치한 후 756년 토번제국이 점령할 때까지 치폐를 거듭한 것<sup>37)</sup>과 북정도호부가 702년에 설치된 것 역시 토번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한다.

33) 左之濤, 「試論唐代羅糜州與正州的轉換」, 『魯東大學』 석사논문, 2006, 1-31쪽.

34) 동상.

35) 郭聲波, 「岷江西山九州考」, 41-59쪽.

36) 盧華語, 「唐代西南地區州(郡)縣增置的幾個問題」, 『中國經濟史研究』 제4집, 2009, 137쪽.

37) 이진선, 「당 전기 安西四鎮의 設置와 變化樣相」, 『동양사학연구』 제141집, 2014, 93-128쪽.

### Ⅲ. 안사의 난 이전 靑海-關中 간 변경공간에서의 충돌과 맹약

안사의 난 이전시기까지, 당-토번 간 크고 작은 공방전이 진행되었고, 화친이나 맹약 체결, 互市개설 등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두 국가 간 접경공간의 기본 골격은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본 장에서는 당-토번 양국 간 접경공간의 위험성이 가장 뚜렷하고 긴장감이 고조된 청해-관중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 한다.

680년 이후, 토욕혼 등 완충지대로서 기미주가 사라진 상태에서, 만약 토번제국이 당의 변경을 침략하거나, 나아가 청해-관중으로 이어지는 동진침략루트로의 전선이 확장될 경우, 당은 관중분위정책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물론 수도 장안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sup>38)</sup> 때문에 당제국으로서 는 군사 전략상의 변화가 필요했다. 기존과 같은 대규모 원정군 동원이나 장거리 원정형 행군체제는 결함이 컸다. 왜냐하면 원정군이 분쟁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설사 도착하였다 해도 고산병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sup>39)</sup>, 이러한 사이 토번의 군대는 이미 자기의 경내로 철수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번군과 마주한 변주지역에 장기 지속적인 군사를 주둔시키는 상비군 체제로의 보강이 필요했다.

667년 河源軍·積石軍·莫門軍의 설치된 이듬해인 668년, 당고종은 가까운 신하들에게 토번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요청한다. 논의된 해결책으로 ①당-토번 간의 和約정책, ② 방어위주의 상비군 설치, ③ 군사 파견을 통해 공격하는 강경책 등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된다.<sup>40)</sup> 이들 가운데 두 번째인 방어위주의 상비군 설치가 채택된다. 이들은 “근접하여 (토번을) 토벌할 경우, 군대의 위엄만 손상시킬 뿐이고,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

38) 陳寅恪, 『唐代政治史論考』, 202-203쪽.

39) 于賡哲, 「疾病與唐蕃戰爭」, 『歷史研究』第5期, 2004, 39-52쪽.

40) 『資治通鑑』卷202. 6386쪽.

도 소굴을 모두 소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세 번째 무력을 통한 공격적 해결책을 반대한다.<sup>41)</sup> 다시 말해, 당과 마주하고 있는 변경지역에서 토번 군대를 근접 토벌할 경우, 교전 중 당군의 인명손실은 불가피하고, 설사 국지적으로 승리한다 하여도 토번의 본진은 여전히 건재하며, 본진이 있는 토번의 소굴에 깊숙이 들어간다해도 근본적으로 소탕할 수 없다는 논지이다. 따라서 모집된 병력을 소규모로 선발해서, 변방 방어로 파견하고, 동시에 봉화대(烽候)<sup>42)</sup>를 설치하여 토번의 침략과 소란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sup>43)</sup> 이와 같이 대규모 원정군에 비해 소규모 병력을 변방에 파견하고 봉화대를 설치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장기적 방어정책이 수립되자 변주지역들에 주둔형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sup>44)</sup> 680년 이후부터 안사의 난 이전까지 隴右지역에 설치한 군사시설의 증설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

41) 舊唐書』卷196(吐蕃上), 5224쪽.

42) 당대 봉화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로, 程希霖, 『漢唐烽堠制度研究』, 三秦出版社, 1990 참조.

43) 舊唐書』卷196(吐蕃上), 5224쪽.

44) 『資治通鑑』卷202, 6395쪽. 대규모 원정군에 비해 소규모 병력을 변방에 파견하고 봉화대를 설치할 골간으로 하는 장기적 방어정책은 당 고종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장기적 방어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한 것은 후치상지에 의해서이다. 680년 토번이 하원군을 침략하자, 후치상지는 이에 반격을 가해 물리친 후, 하원군이 소제한 鄯州지역을 장기적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 봉화대를 70여 곳에 설치하고, 둔전 50여경을 개척하는 등 주둔형 군사시설과 군량 현지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토번에 대한 공격보다는 장기적 방어태세를 갖추게 된다.

표1) 농우지역 軍·守捉·烽燧·關<sup>45)</sup>

州名		軍(城)	守捉(城)/鎮戍/烽燧	關
변주	내지정주			
<b>青海-河隴谷地</b>				
鄯州		隴右節度使(714, 관병 7만5천명) 白水軍(717, 관병 4천명) 臨洮軍(719이후, 관병5만5천명 ) <b>安人軍(719, 관병 1만명)</b> 振武軍(혹은 친위군 729, 관병 1천명)→神武軍(石堡城, 742) 威戎軍(738, 토번 옛 新城, 관병1천 명) 臨蕃城, 綏戎城, 定戎城, 石堡城	<b>綏和守捉城(714, 管兵 1천명)</b> 烽戍七十余所(680)	
蘭州		榆林軍(년도미상) 臨洮軍(719년 이전)	藍州守捉(738년 이전 설치)	<b>金城關</b>
<b>황하상류 동서 간 황하남안 물줄기</b>				
廓州		積石軍(677, 관병 7천명) 寧塞軍(738, 관병 500명) 金天軍(754)·威勝軍(754)·寧邊軍(754)·武寧軍(754)·曜武軍(754)	黃沙戍(년도 미상)	古臨津關(隋代)
河州		臨洮軍(700, 관병 5만5천명) 鎮西軍(738, 관병1만2천명) 天成軍(754)·振威軍(754)	平夷守捉(714, 관병 3천명) 鹽泉城(738)	可藍關 鳳林關
	渭州		渭源鎮 利爾鎮	
	秦州			大震關
<b>황하이남 조하와 민주 루트</b>				
洮州		莫門軍(677, 관병5천5백명) 神策軍(754)	廣恩鎮	
岷州				

45)李宗俊, 『唐前期西北軍事地理問題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6, 249-256쪽. 이종준은 『通典』·『舊唐書』·『新唐書』·『資治通鑑』·『唐會要』·『元和郡縣志』·『唐六典』·『太平寰宇記』 등 문헌사서와 새로 발굴된 墓誌銘을 참조하여, 농우지역에 설치한 軍·守捉·鎮·戍 등 군사시설의 설치연도, 지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표1)은 이종준 연구성과를 기반 위에 재구성한 관계로, 그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않았다. 도표1)에서 설치장소를 변주와 내지정주로 구분하고, 농우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필자의 견해이다.

州名		軍(城)	守捉(城)/鎮戍/ 烽燧	關
변주	내지정주			
<b>민산 북쪽 백룡강 물줄기</b>				
芳州			恒香戍(628)	
疊州		露谷軍(묘지명 고종과 무후시기)	威遠鎮	
	宕州		蘇董戍 交和戍	
	武州			
	成州			

이 가운데, 676년 토변에 의해 점령된 芳州를 제외하고, 680년 이후 軍(城)/守捉(城)/鎮戍/關 등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은 선주·난주·곽주·하주·조주·첩주 등이다. 변주 가운데 하나인 岷州를 제외하고<sup>46)</sup>, 위주·진주·탕주·무주·성주 등 내지 정주는 변주보다 토변의 침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변주가 토변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새로운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지 정주에는 軍/守捉 단위의 주둔형 군사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듯하다. 위주에는 渭源鎮과 利爾鎮이 설치되었는데, 관병이 500명에서 300명에 해당하는 鎮 단위 군부대로 군/수착 단위에 비해 병력규모가 훨씬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渭州에 두 개의 鎮兵을 설치했다는 것은 위주가 관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이곳이 뚫릴 경우 당조 수도인 장안이 위협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변주지역에는 軍城·邊城이나 혹은 軍·鎮·烽燧·屯田 등 군사관련 시설(혹은 군사제도)이 점차 증설되고 있고, 714년에는 이들 軍鎮을 총지휘하는 隴右節度使를 설치한다. 농우절도사는 당현종 시기 이민족의 침략

46) 岷州에는 어떠한 형태의 주둔형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민주의 동쪽에 같은 변주인 洮州가 위치하고, 군사적으로 민주 보다 더 전방에 위치한 조주에 주둔한 막문군이 토변의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러할 듯하다. 또한 민주는 천연의 방어선인 조하가 흐르고 있고, 이 조하의 물줄기는 민주를 거쳐 임조현에 이르기 때문에, 조주→민주→임조(혹은 임주)→하주로 이어지는 중간 지역에 위치한 민주에는 인위적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을 방어하기 위해 변주지역에 설치한 8개 절도사 가운데 하나이다. 군사와 행정기구인 절도사체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당제국의 군사 제도가 원정형 행군체제에서 변주지역에 장기 지속적인 주둔형 상비군 체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제국이 주둔형 상비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680년에서 안사의 난 이전까지 당-토번 간 접경공간은 고착화되었고, 쌍방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토번이 당제국의 변경을 침략하여 약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해도 라티모어나 바필드와 같이 정주국가인 당제국이 유목형 국가인 토번을 침략하고 약탈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불공정한 평가이다. 주지하다시피 670년 대비천 전투와 678년 승풍령 전투, 그리고 695년 王孝杰의 토번 변경 월경 사건 등이<sup>47)</sup>, 당제국이 대규모 원정군을 동원하여 토번을 공격한 사례이다. 당제국이 714년 농우절도사를 설치한 이후 쌍방 간 협의한 맹약을 위반하고 토번을 침략·약탈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표2) 당군이 토번을 침략·약탈한 사례<sup>48)</sup>

년호(연도)	내용
①開元五年(717)	(농우절도사 郭知運) 당군 白水城 축성 및 白水軍 설치
②開元七年(719)	(농우절도사 郭之雲) 당군 安人軍 설치
③開元十五(726 혹은 727)	(농우절도사 王君集) 당군 대비천 침략, 군수품과 양 말 등 노획, 포로포획 후 회군
④開元十六年(728)	(농우절도사 張忠亮) 적석군·막문군과 연합작전으로, 대막문성 함락, 포로로 생포, 말, 야크 등 오백마리, 병장비 및 군수장비를 약탈, 駱駝橋를 소각 후 회군
⑤開元二十二(734)	(하서절도사 崔希逸) 당군이 청해 위쪽을 공격, 적을 죽이고 포로 생포하여 회군

47) 作者未詳, 『歷代贊普傳記』, 王堯, 『王堯藏學文集』(卷一), 中國藏學出版社, 2012, 245쪽 수록

48) 표2)의 출처는 아래 관련 내용을 서술과정에서 제시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토번과의 관계에서 침략과 약탈은 어느 일방의 전유물로 볼 수 없고, 당제국 역시 토번에 침략과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적이다.

당-토번 간 상호 침략과 약탈이라는 무력충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화친과 맹약을 통해 양국 간의 긴장관계를 풀어주는 평화적인 수단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협상을 통한 평화방안은 군사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국경의 경계를 일부 조정시켰다. 당과 토번 간 맹약은 706년 神龍會盟을 필두로 821년 長慶會盟에 이르기 까지 총 11회의 회맹을 맺게 된다.<sup>49)</sup> 이 가운데 안사의 난 이전 모두 4회의 회맹을 맺게 되는데, 변경 구획이나 강역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용회맹의 맹약 문서 전문이 존재하지 않지만 당현종 초기 국정을 담당하는 재상과 토번 사신의 왕래 관련 서술에서 당-토번 간 청해-관중 지역의 국경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짐작할 수 있다. 714년 당의 재상을 역임한 姚崇과 盧懷慎 등은 “과거 토번-대당 간 국경은 황하를 경계로 했다”고 단언한다. 여기에서 과거란 당-토번 사이에 기미주가 사라진 후 직접 군사적으로 직접 대면한 680년 이후를 가리킨다. 그런데 “신용년간(705-706) 사이 금성공주가 토번에 시집 간 후, 토번이 국경선인 황하를 넘어 성을 쌓고, 獨山軍과 九曲軍 두 개의 군진을 설치하였으며, 황하에 교량을 설치하였다”<sup>50)</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황하란 청해호 이남에 위치한 황하상류로, 황하 동서 물줄기에 곽주-하주 등의 변주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680년에서 705년까지 황하상류의 물줄기가 당-토번 간 천연의 국경선이고, 이 국경선을 마주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황하상류의 북쪽

49) 당-토번 간 회맹은 ① 706년 神龍會盟, ② 714년 河源會盟, ③ 733년 赤嶺會盟, ④ 736년 涼州會盟, ⑤ 757년 至德會盟, ⑥ 762년 寶應會盟, ⑦ 765년 永泰會盟, ⑧ 767년 大力會盟, ⑨ 783년 靑水會盟, ⑩ 787년 平涼會盟, ⑪ 821년 長慶會盟 등 총 11회의 회맹을 맺고 있다.

50) 『資治通鑑』卷211, 6705-6706쪽.

에 위치한 鄯州와 토번과의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것이다. 이에 대해서, 718년 토번 사신의 표문에서 “과거(당-토번 간) 地界를 白水지역이라 공평하게 논의한 이래로, 중간지역은 모두 空閑地였다”<sup>51)</sup>라고 한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토번의 내지로 황하 상류의 북쪽에 위치한 청해호 동쪽과 당의 변주인 鄯州의 서쪽에 위치한 백수 사이에 완충지대로 공한지를 두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에 공평하게 논했다는 것은 706년 신용회맹에서 국경선을 획정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천연의 황하 상류 물줄기와 황하 북쪽 백수의 공한지가 당-토번 간 국경선이었던 것이다. 이 국경선은 姚崇과 盧懷慎이 언급한 신용연간(705-706)이 아니라 710년 토번의 사신과 당의 鄯州都督 楊矩와의 교류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발생한다. 토번 사신은 금성공주의 湯沐地라는 명목으로 河西九曲지역을 토번에 할양해 줄 것을 요청했고, 楊矩의 건의와 당조정의 허락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sup>52)</sup> 이를 계기로 토번은 황하 상류유역에 낙타교와 홍제교 등 교량을 건설하고, 황하 남안 하곡지역에 독산군 구곡군 등 주둔군을 설치하여, 황하상류의 남안을 통한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강역 획정은 714년 河源會盟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원회맹에서 “경계 구분을 논한 바는 앞선 맹서문(706년 신용회맹을 가리킴)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sup>53)</sup> 이는 신용회맹의 강역구분을 재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맹은 쌍방의 신뢰에 바탕을 둔 진정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장기간 지속되기가 어렵다. 714년 하원회맹의 회맹문서가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토번이 병사 10만을 거느리고 임조와 난주 등 변주지역은 물론 내지 정주인 謂州지역까지 침략하여 국영목장(監牧)의 말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한다. 기실 당 역시 맹약체결을 전폭 신뢰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원

51) 『冊府元龜』卷981(外臣部·盟誓), 11359-11360쪽.

52) 『新唐書』卷216上(吐蕃上), 6081쪽

53) 『冊府元龜』卷981(外臣部·盟誓), 11359쪽; 『新唐書』卷216上(吐蕃上), 6081쪽.

회맹 체결 과정에서 당 역시 토번과의 맹약체결에 의심을 품었고, 병사 10만 명을 위주와 진주에 미리 주둔시켜 토번의 침략을 대비한다.<sup>54)</sup> 이렇게 토번과의 맹약체결에 대한 의심과 토번의 침략을 장기적으로 방어할 목적으로 같은 해 농우절도사를 설치하게 된다. 그 후 토번은 빈번한 침략을 통해 국경을 넘어 당을 공격하였고, 그들이 체결한 맹약을 공공연히 위반하였지만, 이는 토번만의 귀책사유는 아니었다. 당의 군대 역시 맹약을 위반한 사례가 중국 측 사서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된다. 농우절도사 설립과 동시에 절도사 궤지운은 당시 변주인 鄯州와 河州에 綏和守捉과 平夷守捉을 설치하였고<sup>55)</sup>, 717년에는 당과 토번 간 완충지대로 지정한 空閑地에 白水軍을 설치하게 된다. 특히 당이 맹약을 위반하고 완충지대로 쌍방이 인정한 공한지에 백수군을 설치한 것은 토번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토번 역시 그 이듬해(718년)에 토번의 변경 내에 軍城을 쌓고, 평화시기에는 사신들의 왕래용으로 사용되겠지만, 전쟁시기에는 변경을 守捉하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것을 공언한다.<sup>56)</sup> 719년 백수군의 북쪽에 관병 1만 명의 병사가 주둔하는 安人軍을 설치함으로써 당의 변경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7)</sup>

그러나 맹약의 효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비록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미미하긴 하였지만, 맹약은 토번-당 간의 강역을 현상 유지시키기도 하고 군사충돌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 등 일정 정도 유효한 수단이었다. 특히 731년 赤嶺에 호시를 허락한 것<sup>58)</sup>과 733년 체결된 赤嶺會盟은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호시는 당과 토번 간의 호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적령회맹에서는 기존의 맹약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평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평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54) 『資治通鑑』卷211, 6699-6700쪽.

55) 『通典』卷172(州郡2), 4482쪽

56) 『冊府元龜』卷981(外臣部·盟誓), 11360쪽.

57) 『元和郡縣圖志』卷39, 991쪽; 『通典』卷172(州郡2), 4482쪽.

58) 『資治通鑑』卷213, 6796쪽; 『新唐書』卷216上(吐蕃上), 6065쪽.

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하원회맹과 같이 기존에 정한 접경공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적령 밖에 변계로 정한 곳은 기존에 확정된 것에 일괄적으로 의거하여 강역을 지키고, 변경에 斥候兵을 배치하고, 관문과 나루로 왕래하게 한다. 둘째, 상호불가침의 원칙의 제시이다. 이에 따르면 토변은 변경을 넘어 당이 河隍谷地에 설치한 亭障을 염탐하거나 당의 말을 약탈하거나 당의 농장을 유린하지 않기로 했다. 당의 군사 역시 兵馬를 이용해서 침략하지 않을 것이고, 당군은 토변의 성곽을 엄습하거나 토변의 군사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며, 토변의 도로를 막거나 토변의 부락을 소멸시키지 않기로 했다.<sup>59)</sup> 더불어 이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맹약문서를 비문에 새겨 적령에 세우고, 이 和約을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변경의 관리들이 임의로 침략하는 일탈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책임 있는 담당자를 劍南절도사와와 河西절도사가 관할하는 변경에 위치한 州縣에 파견하여 당-토변 간 和約에 따라 상호 불가침 하도록 천명했다.<sup>60)</sup> 이 맹약은 737년 당이 토변에 단교를 선언하기 이전까지 일시적이거나 효력을 유지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맹약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다주지만, 회맹을 되풀이하고 단교를 선언한다는 것은 맹약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토변-당 간 맹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당 현종은 “과거 盟誓와 和約이 이미 체결했는데, 만약 신뢰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의 盟誓는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sup>61)</sup>라는 맹약 무용론을 들어 토변과 더 이상의 맹약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변-당 사이에 어느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 모두 진정성이 결여된 문제이기도 했다. 예컨대 727년 재상 張說(장열)은 군사정벌을 통한 무력해결 보다는 토변의 화약 요청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지만, 당 현종은 이를

59) 『定蕃漢兩界碑』, 董誥, 『全唐文新編』卷990, 吉林文史出版社, 2000, 13666쪽 수록.

60) 『新唐書』卷216上(吐蕃上), 6085쪽.

61) 『資治通鑑』卷212, 6736쪽.

무시하고 토번을 침략하지는 농우절도사 王君勣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그 스스로 토번과의 맹약준수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sup>62)</sup> 이럼에도 불구하고, 736년 양주회맹 체결당시, 당 현종이 토번 贊普에 보낸 칙서에서, “(당의 군대가) 경계를 넘어 군성을 쌓고, 장병들이 침략하여 약탈을 하고 있다”라는 토번 사신의 문제제기에 대해, 변경의 소인들의 일부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 할 수 있다.<sup>63)</sup>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맹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인 기미정책에도 반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즉 토번이 침략해 오면 무력으로 응징하고, 토번이 떠나면 대비하면서 지키는 전통적 수비형 방어전략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전한시기 흉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경험을 교훈삼아, 중국 문인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대책이다.<sup>64)</sup> 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잘못을 이적에게 있게 하라는 것이다(使曲在彼). 무력사용은 이적이 먼저 침략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돌아가면 국경을 넘어서까지 추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군착을 위시로 하는 강경론자와 이를 지지하는 당현종이 당-토번 간 국경을 넘어 약탈을 서슴지 않은 것은 “잘못이 저들(토번)에게 있게 하라”는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였다. 이 경우 잘못은 토번만 아니라 당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당 현종의 맹약 파기에 대해 반대하는 절도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토번과 돌궐과의 동맹과 교류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하서절도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崔希逸을 꼽을 수 있다. 736년 최희일이 토번과의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여, 토번과 당 사이에 목책을 세워(木柵) 변경의 경계로 삼고 있고, 守捉을 설치해서 지키는 변경<sup>65)</sup>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군

62) 『舊唐書』卷196(吐蕃上), 5229쪽.

63) 「敕吐蕃贊普書」, 『全唐文新編』卷287, 3245쪽 수록.

64) 班固, 『漢書·匈奴傳』卷94下, 中華書局, 1946, 3834쪽.

65) 최희일이 변경에 지키는 守捉은 농우절도사가 관할하는 것으로 714년에 설치한 綏和 守捉과 平夷守捉외에, 이입보가 편찬한 『唐六典』에 五門·富耳·藍州·平戎守捉 등 4개의 수작성이 등장하는데 738년 이전에 농우절도사 관할 변경공간에는 총 6개의 수작성이

이 수작과 같은 군성을 설치해, 백성들의 일상적인 경작을 방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논리로 변경폐쇄를 주장한다. 이는 733년 적령회맹이 변경에 척후병을 배치할 인정을 인정하는 것에 비해 진일보한 제안이다. 그는 이 변경 폐쇄와 상호불가침을 근간으로 하는 맹약체결을 제안한다.<sup>66)</sup> 그러나, 최희일의 협상과는 반대로, 당군 내 강경론자가 맹약의 근본정신을 파기하고, 토변이 맹약에 따라 변경지역의 경계와 방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토변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그 공을 인정받아 현종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게 된다.<sup>67)</sup> 이 결과에 대해, 최희일은 스스로 토변에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여, 속으로 부끄럽고 한스럽게 생각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sup>68)</sup> 이처럼 맹약파기와 위반 문제는 당 현종이 말한 것처럼 토변 측 일방의 탓만이 아니었고, 당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736년 당 현종을 위시로 하는 강경론자의 일방적 맹약파기와 침략행위는 토변으로 하여금 당과의 맹약과 조공관계를 끊어버리는 단교의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sup>69)</sup>

단교이후 당은 소극적 방어태세에서 적극적 공세로 전환하게 된다. 기실 당이 토변과의 맹약이 진정성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737년에 되어서야 비로써 단교를 결정한 것은 당-토변과의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인 듯하다. 714년 양국의 관계 설정과정에서, 토변이 대등한 의례(敵禮)를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이후로 토변이 당의 변경을 매년 침략했다는 것은 토변이 군사상 우위를 점유했음을 반증한다.<sup>70)</sup> 이와 같이 토변이 당에 대등한 의례를 요청한 것은 727년에도 확인된다.

---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唐六典』卷5(尙書丙部), 158쪽 참조.

66) 『舊唐書』卷196(吐蕃上), 5233쪽.

67) 『舊唐書』卷196(吐蕃上), 5233쪽.

68) 『資治通鑑』卷214, 6832쪽.

69) 『舊唐書』卷196(吐蕃上), 5233쪽; 『新唐書』卷216上(吐蕃上), 6085쪽; 『資治通鑑』卷214, 6827쪽.

70) 『資治通鑑』卷211, 6706쪽.

유일한 天子國임을 자처한 당제국 입장에서 토번의 대등한 의례 요청은 그야말로 모욕적인 것이었고, 당시 재상 장영이 분석한 것처럼, 토번을 주살해야 마땅하지만, 지난 십 수 년 동안 군사적 방법으로 선주·하주·양주·감주 등 변주지역에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和約이란 평화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군사상 열세를 인정한 것이다<sup>71)</sup>. 기실 토번과의 맹약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당 현종 역시 그 이후 적령회맹과 양주회맹을 용인한 것은 당시 군사적으로 토번을 압도하지 못함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나 737년 토번과의 단교를 선언한 것은 힘의 균형이 당으로 기울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자 당의 계산된 결정으로 보인다. 토번과 맹약관계를 공개적으로 파기하고, 단교를 선언함으로써, 당 초기 고창국이나 설연타를 제압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제압하면 그만이었다.

이처럼 당군이 토번에 군사상 우위를 점유했던 시기는 738년에서 756년 안사의 난 이전시기 까지 17년 동안뿐이었다. 단교한 이듬해에 당은 하서·농우·검남 등 절도사의 통솔아래 적령의 비석을 파괴했고 이와 동시에 토번이 청해호 서쪽 변경에 축성한 新城을 점령하고 威戎軍을 새롭게 설치했다.<sup>72)</sup> 또 광주와 하주 사이의 황하 남안에 鎮西軍을 설치했으며,<sup>73)</sup> 광주에 寧塞軍군을 설치하는 등 토번과 마주하는 변주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한다.<sup>74)</sup> 그 후 749년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石堡城이 당군에 의해 탈환되었고,<sup>75)</sup> 753년에는 황하 상류 남안에 위치한 洪濟城과 大幕門城을 점령하고, 710년 금성공주의 지참금으로 토번에 할양하였던 黃河九曲 부락을 수복하는 등 일시적으로 승기를 잡게 된다.<sup>76)</sup>

71) 『資治通鑑』卷213, 6776쪽.

72) 『資治通鑑』卷214, 6832쪽; 『通典』卷172(州郡2), 4482쪽.

73) 『資治通鑑』卷214, 6835쪽; 『通典』卷172(州郡2), 4482쪽.

74) 『元和郡縣志』卷39, 991쪽; 『通典』卷172(州郡2), 4482쪽.

75) 『資治通鑑』卷216, 6896쪽.

76) 『資治通鑑』卷216, 6918쪽.

요컨대, 680년 이후에서 755년 안사의 난 이전까지, 당-토번의 변주지역에서 크고 작은 공방전이 전개되었고, 黃河九曲을 둘러싼 일진일퇴의 쟁탈전이 발생하였다. 토번제국과 마주한 접경공간의 기본골격은 안사의 난(755~763) 이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당-토번 간 맹약체결과 互市 등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금성공주 혼사의 명목으로 할양한 황하구곡을 제외하고, 여러 차례의 맹약에서 쌍방의 국경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청해-관중 일대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강역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737년 이전에는 토번이 군사상 우위를 점유하였지만, 737년 단교이후에는 일시적이나마 당이 우위를 점유하게 되어, 당과 토번 간 천연 국경선인 청해호 남쪽 황하상류의 물줄기와 청해호 서쪽에 군성·목책·亭障·空閑地 등 인공 군사시설물들이 결합한 형태의 방어선이자 변경공간인 기본골격은 유지되었다 할 수 있다. 680년과 다른 것은 이들 변경지역에 당측의 군사시설물들이 다수 증설되어, 755년 안사의 난 이전까지는 당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IV. 맺음말: 안사의 난 이후 唐 변주공간의 변화 추이

안사의 난 이전 당은 일시적으로 토번에 비해 군사상 우위를 점유했다. 이후 당-토번 간 군사적 대결의 저울추가 토번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된 것은 안사의 난이라는 당제국의 내부분열 때문이었다. 안사의 난(755년~763년) 이후 당의 접경공간인 변주는 대내외 형세 변화에 따라 재편되어, 그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안사의 난 이후 변주공간의 재편과 원상복구의 대략적인 변화추세를 짚어봄으로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대외적으로 제2 돌궐제국(692년~745년)이 붕괴되었지만, 돌궐의 강역

을 回紇제국(742년~840년)이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당의 북쪽 접경공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농우절도사와 하서절도사가 관할하는 변주와 내지정주의 광활한 지역이 무혈입성과 마찬가지로 토번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안사의 난 이후 姚州(754), 岷州(758년), 維州(759), 蘭州(762), 河州, 鄯州, 洮州(755년), 甘州(766), 肅州(766년) 등 27개 邊州가 토번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는 안사의 난 이전 변주로 지정된 50개 변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접경지역이 토번의 손에 넘어가 당-토번 간 변경이 재편된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당의 관할 하에 있던 서역의 안서사진은 물론이고, 당 전기 내지 정주로 분류되었던 秦州·原州·渭州·宕州·武州·成州 등 당 수도 長安과 인접하거나 관중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까지도 토번제국의 직접통치 하에 놓이게 된다. 763년 안사의 난이 종결된 후 새롭게 재편된 변경에서 당과 토번은 전쟁과 맹약을 거듭했다. 변경의 재편 과정에서 鹽州, 靈州(787년), 안서사진(784년) 등 접경공간이 거래와 협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안서사진은 토번 세력의 확장 수단으로 삼기도 했지만, 763년 새롭게 재편된 접경공간의 기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9세기 초 당제국의 회흘-토번의 동맹을 끊는 서진정책과 토번 고립정책으로 토번제국의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토번제국은 당과의 회맹(821년 長慶會盟)을 통해, 783년 체결한 淸水會盟과 동일한 강역을 인정받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토번제국이 내분에 의해서 분열된 시기인 840에서 848년까지는 763년에 조성된 변경체제와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 850년 이후에는 안사의 난 이후 토번제국이 점령한 변주를 다시 당제국에 넘겨주게 된다. 이는 토번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당제국의 변주가 안사의 난 이후 763년 변경체제에서 그 이전인 680년 당-토번 간 변경체제로 복귀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9세기 중엽 이후 토번제국이 세력이 약화되긴 하였지만, 당제국 역시 절도사의 발호와 환관의 권력 남용 및 황소의 난 등으로 분열기로 접어든 무렵으로, 동아시아의 두 제국이 동시에 쇠락하는 형국이어서, 원상을 지탱하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송대 이후 정복왕조인 원에 의해 정복되기 이전까지 토번-중국 왕조 간의 강역은 기본적으로 680년 변경체제의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제어** : 접경공간, 변주, 변동양상, 형세변화, 토번

(논문투고: 2019.12.09/논문심사완료: 2019.12.20/논문게재 확정일: 2019.12.21.)

## 참고문헌

### <사료>

-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64.  
劉昫, 『舊唐書』, 中華書局, 1975.  
歐陽修, 『新唐書』, 中華書局, 1975.  
司馬光, 『資治通鑑』, 中華書局, 1992.  
杜佑, 『通典』, 中華書局, 1992.  
長孫無忌, 『唐律疏議』, 中華書局, 1983  
李林甫, 『唐六典』, 卷3, 中華書局, 1992,  
李吉甫, 『元和郡縣圖志』, 中華書局, 1983.  
王溥, 『唐會要』, 商務印書館, 1936.  
王欽若, 『冊府元龜』, 鳳凰出版社, 2006.  
작자미상, 『歷代贊普傳記』, 王堯, 『王堯藏學文集』(卷一), 中國藏學出版社,  
2012 수록.  
董誥, 『全唐文新編』, 卷990 ·287, , 吉林文史出版社, 2000.

### <단행본>

- 陳寅恪, 「唐代政治史論考」, 『陳寅恪集』, 三聯書店, 2001.  
李宗俊, 『唐前期西北軍事地理問題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6.  
程希霖, 『漢唐烽堠制度研究』, 三秦出版社, 1990.  
Owen Lattimore, 唐曉峰譯, 『中國的亞洲內陸邊疆』, 江蘇人民出版社, 2008.  
鄧仕海, 『唐代西南邊政与邊吏研究』, 雲南大學 박사학위논문, 2017.  
許偉偉, 「唐代前期邊州若干問題初探」, 武漢大學 석사학위논문, 2006.  
左之濤, 「試論唐代羈縻州与正州的轉換」, 魯東大學 석사학위논문, 2006.  
Thomas J.Barfield, 윤영인 번역, 『위대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2009.

Owen Lattimor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Boston: Beacon Press, 1962.

Thomas J. Barfield,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Wiley-Blackwell, 1992.

Denis Twitchett,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Sui- and Tang-China-589-906-AD-Part-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논문>

王丹, 「唐代邊州研究重要性論析」, 『新西部』 第9期, 2016.

盧華語, 「唐代西南地區州(郡)縣增置的幾個問題」, 『中國經濟史研究』 第4집, 2009.

于賡哲, 「疾病與唐蕃戰爭」, 『歷史研究』 第5期, 2004.

郭聲波, 「河曲十六州交通与地望考」, 『中國歷史地理論叢』 第2輯, 1994.

郭聲波, 「唐弱水西山羈縻州及保寧都護府考」, 『中國史研究』 第4期, 1999.

郭聲波, 「岷江西山九州考」, 『中國歷史地理論叢』 第2輯, 1998, 41-59쪽.

菊池英夫, 「唐代的边防機關としての守捉·城·鎮の成立過程」, 『東洋史學』 第27號, 1964, 37-57쪽.

이진선, 「당 전기 安西四鎮의 設置와 變化樣相」, 『동양사학연구』 第141집, 2014, 93-128쪽.

이춘복, 「唐代 접경공간으로 三受降城」, 『역사문화연구』 第71집, 2019, 3-38쪽.

## Bibliography

### <Historical Materials>

- Ban, Gu, *Han shu* (The Book of the Han), Beijing: Zhonghua, 1964.
- Liu, Xu *et al.*, *Jiu Tangshu*(Old Book of Tang), Beijing: Zhonghua, 1975.
- Du, You, *Tongdian*(Comprehensive Statutes), Beijing: Zhonghua, 1992.
- Zhangsun, Wuji, *TangLuShuYi*(Commentaries on the Codes of Tang), Beijing: Zhonghua, 1983.
- Li, Linfu, *Tang liudian*(The six statutes of the Tang dynasty), Beijing: Zhonghua, 1992.
- Li, Jifu, *Yuanhe junxian tuzhi*(Illustrated gazetteer of commanderies and counties in the Yuanhe Era), Beijing: Zhonghua, 1983.
- Ouyang, Xiu, *et al.*, *Xin Tangshu*(New book of the Tang), Beijing: Zhonghua, 1975.
- Sima, Guang, *Zizhi Tongjian*(Comprehensive Mirror to Aid in Government), Beijing: Zhonghua, 1992.
- Wang, Pu, *Tang Huiyao*(Institutional history of Tang), Shanghai: Shangwuyinshuguan, 1936.
- Wang, Qinruo, *et al.*, *Cefu yuan gu*(Outstanding Models from the Archives), Nanjing: Feng huang chu ban she, 2006.
- Wang, Yao, *Wang Yao Zang xue wen ji*(Collected works ON Tibetology and Anthropology)Volume 1, Beijing: Zhongguo Zangxue Chubanshe, 2012.
- Dong, Gao, *Quan Tang wen xinbian*(New edition of Complete Tang prose) Volume 990·287, Changchun: Jinlin wenshi chubanshe, 2000.

<Monographs>

- Chen, YinQue, *Chen YinQue ji*(The collection of Chen Yin Que's works), Beijing: Joint Publishing Company, 2001.
- Li, Zongjun, *Tang qianqi xibei junshi dili wenti yanjiu*(A Study on Military Geography of Northwest China in Early Period of Tang Dynasty), Beijing: Zhongguo Shehui Kexue Chubanshe, 2016.
- Cheng, Xilin, *Han Tang feng hou zhi du yan jiu*(Study of the Han and Tang beacon systems), Xian: Sanqin Chubanshe, 1990.
- Deng, Shihai, *Tangdai Xinan Bianzheng yu Bianli yanjiu* (The Study on Frontier policy and Border official of the southwest in Tang dynasty), Yunnan daxue(doctoral dissertation), 2017.
- Xu, Weiwei, *Tangdai Qianqi Bianzhou luogan Wenti Chutan*(The Elementary Study on The Problems of Bianzhou in The Early Tang Dynasty), Wuhan daxue(master's thesis), 2006.
- Zuo, Zhitao, *Shilun Tangdai jimizhou yu zhengzhou de zhuanhuan*(A Discussion on the conversion of loose-rein prefectures and regular prefectures in Tang Dynasty), Ludong daxue(master's thesis), 2006.
- Lattimore, Owen,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Boston: Beacon Press, 1962.
- J.Barfield, Thomas,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Wiley-Blackwell, 1992.
- Twitchett, Deni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Sui-and-Tang-China-589-906-AD-Part-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Articles>

Wang, Dan, “Tangdai ‘bianzhou’ yanjiu zhongyaoxing lunxi”(Discussion and Analysis on Importance of research ‘Bianzhou’ of Tang Dynasty), *New West* No.9, 2016.

Lu, Huayu, “Tangdai Xinan diqu Zhouxian zengzhi de jige wenti”(a few questions about establishing prefectures and counties in Xinan area of Tang Dynasty), *Researches in Chinese Economic History* No.4 2009.

Yu, Gengzhe, “Jibing yu Tang-Fan Zhanzheng”(Disease and the Tang-Tibetan War), *Historical Research* No.5, 2004.

Guo, Shengbo, “Hequ Shiliuzhou jiaotong and Diwang kao”(Transportation and Location on Hequ Sixteen prefectures of Hequ), *Collections of Essays On Chinese Historical Geography* No2. 1994.

Guo, Shengbo, “Tang Ruoshui Xishan Jimizhou ji Baoning douhufu kao”(To verify on loose-rein prefectures and Baoning protectorate in Ruoshui Xishan of Tang Dynasty), *STUDY OF CHINESE HISTORY* No.4, 1999.

Guo, Shengbo, “Minjiang xishan jiuzhou kao”(To verify the Nine Prefectures in Xishan on Minjiang During Tang Dynasty), *Collections of Essays On Chinese Historical Geography* No.2, 1998.

Kikuchi, Hideo, “Toudaidekihenboukikantoshite no shusoku, jou, chin no seiritsukatei”(The Formation Process of defends seizes, border forts, and garrison stations as frontier defense of Tang Dynasty), *Toyo Shigaku* 27, 1964, pp. 37-57.

Lee, Chun-bok “The Sanshouxiangcheng as the Contact Zones of the Tang Dynasty”,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Vol.71, 2019, pp.

3-38.

Lee, Jin-sun,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police station of four garrison stations of Anxi and its Change in Tang Dynasty”, *Journal of Asian Historical Studies* Vol.14. 2014, pp. 93-128.

A Study on the Contact Zones Changes  
of the Tang Dynasty:  
Expansion and Reduction of the Tang's *Bianzhou*

Lee, Chun-Bok

This study aims to outline changes over 300 years in the contact zones of the Tang dynasty (618-907). The empire is considered the most open dynasty in terms of interactions and exchanges with neighboring states than any other dynasties in the history of China. However, its openness does not mean that there were no contact zones separating the dynasty from the surrounding states. The frontier prefectures(*Bianzhou*) as the contact zones of Tang were different from the indirectly administered prefectures (*Jimizhou*), where the Chinese were indirectly involved with other ethnic peoples, and also different from the regular prefectures(*Zhengzhou*).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contact zones was constructed complicatedly with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such as the Great Wall, border forts and frontier junctures(*Guansai*), garrison towns(*Jun*), garrison stations(*Zhen*), signal fires, and post houses (*Yi*). Some *Bianzhou*, prefecture-level administrative districts among the *Zhengzhou* established in the frontiers, also included places for civilian settlement as well as the space for military use. The contact zones of Tang were characterized by a combination of these three concepts: points, lines and aspects.

The contact zones of Tang, depending on its war and peace with the surrounding states, were not fixed but continuously changed their

spaces and borders. Although the Tang's territorial expansion reached its zenith during the early imperial period, its borderlands were not expanded indefinitely. The northern contact zones between the Tang and the Türks did not move far beyond the great walls built in the Sui dynasty. In the Ordos, the Yellow River was perceived as a borderline, and the frontier only expanded partially to the northern part of the River by building the three cities for receiving surrenders (*Sanshou-xiangcheng*) there in 709. In the northwest, the Tang expanded to the areas of the Hexi Corridor and the four garrison stations of Anxi, but in the west, the Tang's expansion remained in the status quo as the Tibetan Empire had occupied the Tuyuhun and won a major victory against the Tang in the battle of Dafei River (*Dafeichuan*). Until the reign of Emperor Xuanzong of Tang, there were only a series of minor advances and retreats in the frontier areas where the *Tuyuhun* and the *Qinghai* resided.

After the An Shi Rebellion from 755-763, the Tang's contact zones were reduced depending on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In the external respect, the northern contact zones of Tang remained unchanged since the Uyghurs immediately succeeded the *Tujue*, who ruled from 692-745, in 742-840. On the other hand, in the west and northwest, a great change occurred as the war and settlement between the Tang and the Tibetans were repeated. Through the war and settlement, they reconfirmed some existing borderlands and treated some contact zones such as *Yanzhou*, *Lingzhou* (靈州) and the An Shi Rebellion as a means for deals and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es of readjustment, and even the Tibetans used some to expand their forces. After the An Shi Rebellion, the Tibetans had conquered 27 *Bianzhou*

including *Yaozhou* (姚州 754), *Minzhou* (岷州 758), *Weizhou* (維州 759), *Lanzhou* (蘭州 762), *Hezhou* (河州), *Shanzhou* (鄯州), *Taozhou* (洮州), *Ganzhou* (甘州 766), *Suzhou* (肅州 766). This means that more than half of the 50 Bianzhou established by Tang fell under the control of the Tibetans. Even the Anxisizhen in the west as well as the prefectures adjacent to the Tang's capital city, *Changan* (長安), such as *Qinzhou* (秦州), *Chengzhou* (成州), *Weizhou* (渭州) and *Yuanzhou* (原州), which had been part of *Zhengzhou* during the early Tang period, came under the direct rule of the Tibetans.

**Key Words** : Contact Zones, Frontier prefectures,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Tibetan Empire